

고금리 여파, 가계 이자비용 증가 '역대 최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이자비용 18.3% ↑ 조사 이래 최대
가구 21% 소득 1천만~3천만원
은퇴후 적정 월생활비 324만원

지난해 우리나라 평균 가구 소득이 6762만원으로 1년 전보다 4.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고금리 여파로 이자비용 증가율은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로 기록됐다.

통계청이 7일 발표한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가구의 평균 소득은 6762만원으로 2021년(6470만원)에 비해 293만원

(4.5%) 증가했다.

지난 2021년 소득증가율(4.7%)보다 둔화했지만 여전히 높은 4%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통계를 작성한 2012년 이래 3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소득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근로소득이 전년보다 265만원(6.4%) 늘어나 4390만원으로 집계됐다. 사업소득은 1206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46만원(4.0%) 증가했다.

가구 중 가장 큰 비율인 21.6%가 소득이 1000만~3000만원 미만이었다. 1억원 이상인 가구가 20%로 두 번째로 비중이 컸다. 그의 3000만~5000만원 미만(19.8%), 7000만~1억원 미만(17%), 5000만~7000만원 미만

(16.4%), 1000만원 미만(5.2%)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주가 39세 이하인 가구는 3000만~5000만원 미만에서의 가구 비율(25.5%)이 가장 높았다. 40대(27.9%)와 50대(30.5%) 가구는 1억원 이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60세 이상인 가구는 1000만~3000만원 미만(34.1%)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가구의 중사상 지위로 보면 임시·일용근로자 가구는 1000만~3000만원 미만(41.8%)에서 가장 비중이 높았다.

상용근로자인 가구는 1억원 이상(29.8%), 자영업자 가구는 3000만~5000만원 미만(23.3%)이 가장 비중이

컸다.

가구의 평균비소비지출은 1280만원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했다. 비소비지출은 세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이자 등으로 빠져나가는 지출을 말한다.

구성비와 금액을 보면 공적연금·사회보험료 433만원(33.8%), 세금 416만원(32.5%), 이자비용 247만원(19.3%), 가구 간 이전지출 141만원(11.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자비용은 비소비지출 가운데 증감율이 가장 높았는데, 전년보다 18.3%(38만원) 늘었다. 이는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 증가율이다. 이자비용의 전체 구성비도 전년보다 1.7%포인트(p) 늘었다.

올해 3월말 기준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은 가구는 83.0%로 집계됐고, 예상 은퇴 연령은 68.1세로 나타났다. 은퇴 후 가구주와 배우자의 월평균 적정생활비는 324만원으로, 전년 대비 11만원 증가했다.

가구주가 은퇴한 가구는 17%였고, 실제 은퇴 연령은 62.7세였다. 가구주와 배우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은 공적 수혜금(30.9%), 공적연금(30.8%), 가족수입 및 자녀 등의 용돈(25.4%)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지역별 소득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서울(7290만원), 대전(6768만원), 울산(7070만원), 세종(8641만원), 경기(7671만원)로 나타났다. **뉴시스**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주식거래대금 '급증'

전월비 시총도 2조1천억 증가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주식거래대금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거래소 광주혁신성장센터가 발표한 2023년 11월 광주전남 증시 동향에 따르면 전월 대비 매수거래대금 46.20%(1조141억원) 증가하고 매도거래대금도 52.51%(1조1281억원) 증가했다.

코스피에서 매수거래대금 38.45%(4556억원), 매도거래대금 51.94%(5850억원) 각각 증가했다.

코스닥에서도 매수거래대금 55.31%(5585억원), 매도거래대금 53.15%(5431억원) 각각 증가했다.

전체 대비 광주·전남 투자자의 매수거래대금 비중은 0.78%로 전월보다 0.11%포인트 증가했고 매도거래대금 비중은 0.80%로 전월보다 0.14%포인트 증가했

다.

주요 거래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에코프로머티, POSCO홀딩스 등을 매수 및 매도하고,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등을 매수 및 매도했다.

전월 대비 시총은 12.86%(2조1379억원) 증가했다. 코스피에서는 12.77%(1조9181억원), 코스닥에서 13.72%(2198억원) 각각 증가했다.

코스피 시총은 한국전력(1조2389억원, 11.41%) 금호타이어(3892억원, 32.22%) 등이 증가했고 대우플러스(-567억원, -65.84%), 다스코(-11억원, -1.36%) 등이 감소했다.

코스닥 시총은 박셀바이오(834억원, 24.24%), 남화토건(124억원, 17.07%) 등이 증가했고 유니아(-261억원, -51.93%), 우리로(-106억원, -12.17%) 등이 감소했다.

최권범 기자

이마트, 14일까지 창립 30주년 할인 행사

소고기·과일 등 40% 인하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은 이마트가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30주년 창립 기념 2주차 행사를 이어간다고 7일 밝혔다. 이마트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육류·보양식·제철 과일 등 신선 먹거리부터 가공·일상 등 생필품들을 최대 50%할인·1+1 행사로 선보인다.

먼저 호주산 소고기부터 한우 국거리·불고기, 돈육, 토종닭 등 연말 대표 인기 상품인 육류 대형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대표 상품으로는 '호주산 안심 스테이크(100g, 냉장)'를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40% 할인한 3576원에 판매하고, KB국민카드로 결제 시 10% 추가 할인이 적용돼 정가가 5960원 대비 50% 할인된 2980원에 구매할 수 있다.

또 '호주산 찜갈비(100g, 냉장)'를 신



이마트 축산 매장.

이마트 제육

세계포인트 적립 시 40% 할인한 1960원에, '호주산 적아이를·부채(100g, 냉장)'는 각 1980원에 선보인다.

이 밖에도 일주일간 '토종닭 전품목(냉장, 국내산)'을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30%, '1등급 이상으로 선별한 돈 앞다리·뒷다리·갈비(냉장, 국내산)'는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20% 할인 판매한다.

일별 특가 행사도 준비했다. 8일부터 11일까지 '브랜드 한우 국거리·불고기(냉장, 국내산)'를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40% 할인하고, 같은 기간 '호주 살치살·꽃갈비살(냉장)'을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30% 할인 판매한다.

전북·봉지굴 등 겨울 인기 수산물인 해양수산부와 협력해 최대 40% 저렴하게 선보인다. 감귤, 딸기 등 겨울 제철 과일도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준비했다.

이 외에도 14일까지 'CJ 고메 피자 3종', 'CJ 비비고 한솥만두·김치왕교자' 등 가공식품을 2개 이상 구매 시 50% 할인 판매하고, '정정원 상온 곰팡류 5종', '샘표 티아시아·폰타나 간편식 행사상품 19종', '홈스타 청소용 세정제' 등을 1+1으로 선보인다. **박소영 기자**

신협, 올해 21억 상당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신협중앙회는 올해 총 21억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고 7일 밝혔다.

신협이 밝힌 올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금액은 올해 10월 기준으로 집계한 것으로, 전국 51개 신협에서 54건의 사고를 막아 달성한 성과다.

지역별로는 대전충남지역이 13건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아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이어 부산경남지역, 광주전남지역, 충북지역이 각각 7건, 인천경기지역 6건, 대구경북지역 5건, 전북지역 4건, 강원지역 3건, 서울과 제주지역이 1건

순이다.

신협이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 보이스피싱 유형으로는 검찰·기관등의 사칭 유형 23건, 대출사기 유형 13건, 자녀납치 협박 유형 9건, 개인정보유출 유형 7건, 인출책 검거 2건으로 나타났다.

신협중앙회 추창호 금융소비자보호부 문장은 "날이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로부터 조합원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피해예방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권범 기자

홈플러스, 최대 반값 '홈플러스대란' 행사 진행

13일까지 신선식품 등 할인

홈플러스는 7일부터 13일까지 '홈플러스대란'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먼저 신선식품은 7대카드 결제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딸기 전품목'을 5000원 할인한다. '신선농장 15Brix 사인머스캣(1.2kg)', '파프리카', '새벽양상추' 등은 50% 할인가에 선보인다. 또 10일까지는 '호주청정우' 전품목 최대 반값 행사를 진행한다.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8일부터 3일간 대표 인기 상품 '보떡돼삼

겹살·목심'을 50% 할인하고, 이날부터 13일까지 '초간편 만능대패삼겹살', '자숙 랍스터', '흰다리 새우', '블랙타이거 새우'도 50% 할인한다. 또 'CJ 다담 찜개 양념 전품목', '롯데칠성 음료(20여종)', '유기농 두부·콩나물(4종)' 등 다양한 먹거리는 1+1로 구매할 수 있다.

연말 홈파티를 위한 델리 신상 메뉴도 내놓았다. 회원을 대상으로 100% 국내산 생닭을 사용한 '당당 두마리 옛날 통닭'와 '고백스시 모듬초밥 40입'을 각각 1만원대에 판매한다.

또 크리스마스 선물로 수요가 높은 완

구(600여종)는 최대 80% 할인하고, 연말 분위기를 더해줄 '와인(190여종)', '양주류(190여종)'는 최대 반값에 구매할 수 있다. 9500여 개 상품을 최대 80% 할인가로 만날 수 있는 장고대방출 세일에서는 'LG그램 노트북(40여종)'을 최대 50% 할인한다.

조도연 홈플러스브랜드본부장은 "고물가 속 연말 홈파티를 계획 중인 고객들을 위해 압도적인 맛과 가격을 자랑하는 신선식품부터 델리 신상 먹거리까지 총망라했다"며 "고품질의 신선식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홈플러스대란' 행사와 함께 물가 걱정 없는 풍성한 연말 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

재테크 칼럼

우리나라든 해외든 요즘은 장기투자자를 보기가 힘들다. 워런버핏, 앙드레 코스톨라니, 피터린치 등 위대한 증권 투자자들은 한결같이 장기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들은 그들의 충고에 수긍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따르지 않는다. 이유는 투자자들의 탐욕과 성급함에 있는 것 같다. 증권방송과 유튜브 등에 등장하는 자칭 증권전문가와 증권회사에 근무하는 영업사원 등이 단기적

인 상황을 매일 예측하면서 투자자들의 성급함에 부채질을 하는 것도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

개인투자자는 빠른 시간에 큰 돈을 벌고 싶어 하고 증권전문가들은 떠나없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단기투자를 부추기다 보니 장기투자자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된다.

단기 투자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차트나 이동평균선등은 과거의 사실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그 사실들을 패턴화 시켜서 미

래의 주가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인데 얼핏 들으면 맞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럴 듯 하게 보일뿐 과거의 기록으로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환상일 뿐이다.

십 수년 전 미국의 모 경영대학에서 펀드매니저와 원숭이의 주식투자 실험을 했는데 수익률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원숭이가 좋은 적도 있었다는 사실은 단기투자가 얼마나 도박성이 강한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물론 차트 등 과거의 데이



송호

경제 칼럼니스트

터도 주식투자를 할 때 충분히 참고할 자료다. 하지만 말 그대로 참고용으로 사용하지 믿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차트를 분석하고 연구할 시간에 상장회사의 실적과 미래지향성, 경영구조, 신규사업 등을 공부하고 장기투자할 회사를 고르는 것이 더 쉽고 안전하고 큰 수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다. 장기투자의 본질은 버티는 것이다. 투자한 회사의 사업내용이나 실적 등에 위

험요인이 등장하지 않는 한 주가의 등락에 반응하지 않고 몇 년이고 묵어두는 것이다. 좋은 회사라고 해서 수익을 쉽게 주지는 않는다. 몇 년을 묵어두다 보면 매수가에서 수십퍼센트까지 하락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버티야 한다. 특히 시간이 많지 않은 개인투자자라면 장기투자만이 정답이라고 생각된다.

장기 투자할 기업을 고를 때는 미래 성장성을 우선하고 거기에 실적과 능력 있는 경영진 고려한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주식대가들의 성공은 장기투자의 효용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들을 기억하자.